

교수일반분과/세계관/03/

산 돌에게 나아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산 돌들
-베드로전서 2:4-8에 나타난 교회공동체의 정체성을 중심으로-1)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오유석

1. 시작하는 말

베드로전서는 적대적 환경에서 꺾박당하고 소외된 기독교 공동체를 향한 위로의 메시지이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1:1)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이전의 잘못된 생각과 생활방식을 버렸다(2:10-11). 하지만 그들은 세상 속에서 나그네와 행인(1:1, 2:11)으로 살아가야 했으며, 악인으로 오인되고(2:12),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인해 욕을 받게 되었다(4:14). 그들은 이방인이 일상적으로 감내해야 할 고통 외에, 실패한 유대 구원자의 추종자라는 조소와 모욕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당시 로마인들이 보기에 그리스도는 십자가 사형을 당한 죄인에 불과했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광신도일 뿐이었다.²⁾ 베드로전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직면한 교회공동체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해 주는 동시에, 적대적인 환경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길을 가르치고 있다.

본 논고는 베드로전서 2:4-8에 나타난 교회공동체와 신자의 정체성을,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산 돌들인 교회공동체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 전후 문맥과 구조

베드로전서 1:1-2:10은 베드로전서의 첫 번째 큰 덩어리에 해당하는데,³⁾ 여기서 베드로는 교회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교회공동체는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선택받은 백성이다(1:1). 또한 교회공동체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고, 심판의 날에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산 소망을 얻었다(1:3). 교회공동체의 거듭남(즉 다시 태어남)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1:23). 이 때문에 생물학적 부모에게서 탄생한 모든 사람은 마치 시드는 풀처럼 죽게 되지만(1:24), 하나님의 영원히 살아 계신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영생을 얻는다.

2:1-10에서 베드로는 거듭난(혹은 다시 태어난) 교회공동체의 새로운 정체성을 몇 가지 비유로 설명함으로써 교회의 새로운 정체성에 관한 가르침을 완결짓고 있다.⁴⁾

1) 이 논문은 2019년도 백석대학교 대학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2)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도 외부인들로부터 주어진 것이었고(행 11:26), 조롱의 대상이었다(행 26:28). 그리스도인에 대한 로마사회의 편견에 관해서는 Jerry Truex, “God’s Spiritual House: A Study of Peter 2:4-5”, *Direction* 33/2 (2004), 187 참고.
3) 채영삼, “교회란 무엇인가? (2) : 베드로전서 2:9 주해”, 『백석신학저널』 제25호 (2013), 213.
4) Karen H. Jobes, *1 Peter*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갓난 아이(2:1-3) : 먼저 베드로는 교회공동체를 갓난아기에 비유한다. 2:2의 ἀρτιγέννητα⁵⁾ βρέφη는 의미론적으로 1:3의 ἀνα-γεννήσας와 연결된다. 즉 하나님께서 교회공동체를 거듭하게 하셨기 때문에(혹은 다시 낳으셨기 때문에) 교회공동체는 마치 갓 태어난 아기처럼 올바른 양육을 필요로 한다. 베드로는 신생아로 비유된 교회공동체에 필요한 양식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τὸ λογικὸν ἄδολον γάλα)”⁶⁾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λογικὸν은 의미론적으로 1:23의 λόγος 및 1:25의 ῥῆμα와 밀접히 연결되는 한편, 1:23의 σπορὰ φθαρτή 및 2:1의 καταλαλιά와 대조되고 있다. 다시 말해 신자들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히 살아 계신 말씀에 의해 다시 태어나게 되었으므로, 썩거나 더러워지거나 쇠하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젖(τὸ λογικὸν ἄδολον γάλα)에 의지해서 영적, 도덕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베드로는 2:1의 “악독과 모든 꾀술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2:2의 “순전한 말씀의 젖”과 대조시킴으로써, 교회공동체의 언행이 불신자들의 언행과 구별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⁷⁾

㉕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돌들 (2:4-8) : 교회공동체를 새롭게 태어난 신생아에 비유한 베드로는 이제 교회공동체를 “집(οἶκος)”에 비유함으로써, “탄생”의 모티프를 “가족”의 모티프로 발전시키는 한편 다시 “성전”의 모티프로 전환하고 있다.⁸⁾ 특히 “신령한 집”의 구성요소와 관련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산 돌”에 비유하는 한편(2:4), 교회공동체를 “산 돌들”에 비유한다(2:5). 즉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는 버려졌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돌이다(2:4). 이는 교회공동체(“산 돌들”)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과 무시, 핍박을 받으며 뿔뿔이 흩어져서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가야 하지만(1:1 및 2:11), 삼위 하나님에 의해 택함받은 백성(1:1-2)이며, 새 시대의 성전(2:5)이자 새 이스라엘(2:9)임을 함축한다. 한편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는 버려졌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 입은 보배로운 돌이었듯이,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혀 다른 대상으로 인식된다. 즉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새 성전의 기초가 될 보배로운 돌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될 뿐이다(2:6-8).

Michigan: Baker Academic, 2005), 129.

5) ἀρτιγέννητα는 베드로전서 이전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던 단어였으나, 베드로전서 이후 초대교부들의 성경 인용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Katherine Anne Girsch, *Begotten Anew: Divine Regeneration and Identity Construction in 1 Peter*, PhD thesis (Durham University, 2015), 162.

6) 신약성경에서 젖은 미숙한 신자들에게 필요한 가르침 내지 양육을 상징한다(고전 3:2, 히 5:12-13). 이런 이유로 초대교회에서도 세례를 마친 그리스도인은 성찬식 때 빵과 포도주와 함께 꿀 섞인 우유 한 잔을 마셨다고 한다. Nha Trong Tran, *A Theology of the First Epistle of Peter: God in Threefold Revelation*, PhD Thesi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6), 243.

7) 헬라-로마 및 유대 사상가들은 아기가 젖으로부터 단순히 생존에 필요한 영양소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지적 성장을 위한 양분을 얻게 된다고 생각했으며, 유대사회에서 젖 먹이는 일은 신생아를 사회화하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시 태어난 신자들이 영적, 도덕적으로도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Katherine Anne Girsch 에 따르면, 베드로전서 2:1-3에서는 존재론(“교회공동체는 어떻게 다시 태어나게 되었는가?”)에서 윤리학(“다시 태어나 신성 가족의 일원이 된 신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으로 신학적 주제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Katherine Anne Girsch, *Begotten Anew: Divine Regeneration and Identity Construction in 1 Peter*, PhD thesis (Durham University, 2015), 145-169.

8) Katherine Anne Girsch, *Begotten Anew: Divine Regeneration and Identity Construction in 1 Peter*, PhD thesis (Durham University, 2015), 173-7.

© 새 이스라엘 (2:9-10) : 2:1-3에서 베드로는 교회공동체를 “순전한 말씀의 젖을 먹고 양육되는 갓난아기”에 비유했고, 2:4-8에서는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산 돌들” 및 “새 성전에서 제사지내는 제사장”에 비유함으로써 교회공동체의 올바른 양육과 성장에 관해 가르쳤다. 2:9-10에서 베드로는 교회공동체를 민족 내지 국가에 비유하고 있다. 즉 과거에 교회공동체는 백성 아닌 자였으나(2:10), 이제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2:9)이 되었다. 여기서 “택하신 족속(γένος ἐκλεκτόν: 사 43:20 ‘내 백성 나의 택한 자’), “왕 같은 제사장(βασιλειον ιερ α̅τευμα: 출 19:6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ἔθνος ἅγιον: 출 19:6 ‘거룩한 백성’), “소유된 백성(λαός εις περιποίησιν: 사 43: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은 모두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가리키던 표현이었다. 따라서 교회공동체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선언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다시 낳으신(혹은 거듭나게 하신) 궁극적 목적이 교회공동체를 옛 이스라엘을 대체할 새 이스라엘로 세우기 위함임을 보여준다.⁹⁾ 이제 신자들은 자신의 개인사를 이스라엘 역사와의 연속선상에서 조망할 수 있게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 속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¹⁰⁾

여기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베드로전서 2:1-10은 1:3의 거듭남(또는 다시 태어남)을 여러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2:1-10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새 탄생 → 순전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하는 **아기** →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와서 **신령한 집(새 가족 & 새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산 돌들 → 새 성전에서 제사지내는 제사장 공동체 → 새 이스라엘(**민족 혹은 국가**)¹¹⁾

3. 산 돌이신 예수께로 나아옴(2:4)

2:4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규정하기 위해 먼저 “누가 나의 하나님인가?”, “나는 누구를 믿는가?”, “나는 어떤 공동체에 속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Who am I?”라고 묻기 전에 “Whose am I?”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¹²⁾

신자들이 거듭나게 된 것(혹은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

9) 베드로전서에는 출애굽 모티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일부 해석자들은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일차적으로 유대인 공동체라고 간주하기도 했다. 가령 Eusebius, *Hist. eccl.* 3.1.2 및 John Calvin, *The First Epistle of Peter*, in *Commentaries on the Catholic Epistles, Calvin's Commentaries*, vol. 22, trans. John Owen (Grand Rapids: Baker, 1996). 하지만 베드로전서 1:14는 독자들에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좃던 너희 사욕**을 본 삼지 말고”라고 말하고 있으며, 1:18에서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라고 말함으로써, 수신자들이 이방인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 중 대다수가 이방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10) Katherine Anne Girsch, *Begotten Anew: Divine Regeneration and Identity Construction in 1 Peter*, PhD thesis (Durham University, 2015), 250.

11)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심(재창조 사역)은 크게 두 차원(개별적 차원과 공동체적 차원)로 구성된다. 즉 각 신자는 썩지 않는 씨(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과거에 말씀을 알지 못하던 때에 추구하던 사욕을 버리고, 산 돌들이 되어 그리스도께로 나아왔다. 한편 신자들의 공동체는 성전과 제사장 그리고 새 이스라엘이 되었다. Katherine Anne Girsch, *Begotten Anew: Divine Regeneration and Identity Construction in 1 Peter*, PhD thesis (Durham University, 2015), 145, 177, 242.

12) Daniel M. Doriani, *1 Peter* (Phillipsburg & New Jersey, 2014), 65.

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았으며(1:3), 예수께서 고난당한 까닭은 신자들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기 때문이다(2:21).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공동체의 기초이자 본(혹은 밑그림 : ὑπογραμμός)이 되는 분이므로, 교회공동체의 정체성을 규정하려면 먼저 교회의 기초이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규정해야 한다.

2:4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사람들로 부터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며, 교회공동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먼저 택하셨음에 기인한다.

1) προσερχόμενοι

προσερχόμενοι는 분사형태이며 2:5의 οἰκοδομεῖσθε를 부연설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만약 οἰκοδομεῖσθε가 명령형이라면 προσερχόμενοι도 명령형으로 해석해야 하며(RSV, NEB, NRS, 한글개역), 반대로 οἰκοδομεῖσθε가 직설법 동사라면 προσερχόμενοι도 직설법으로 해석해야 한다(ASV, ESV, KJV, NASB, NET, NIV). 그런데 οἰκοδομέω가 70인역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서 2인칭 수동 명령형으로 사용된 용례가 없으며,¹³⁾ 베드로전서 2:4-10에 다른 명령형 구문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¹⁴⁾ οἰκοδομεῖσθε와 προσερχόμενοι는 직설법 구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προσερχομαι는 70인역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레 9:5; 신 4:11; 5:27),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 장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출 12:48; 16:9; 레 9:7-8; 10:4-5)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를 의미하며, 히브리서에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가리킨다(히 4:16; 7:25; 10:1, 22; 11:6; 12:18, 22).¹⁵⁾ 아마도 베드로는 시편 34:5(προσέλθατε πρὸς αὐτόν)를 염두에 두면서, 수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것(마 5:1; 18:1; 히 4:16; 7:21)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거나,¹⁶⁾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에게만 보장되었던 특권(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이 이제 모든 신자들에게 허용되었음을 선언하는 듯하다.¹⁷⁾ 만약 J. Ramsey Michaels의 제안처럼 προσερχόμενοι를 “그리스도께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아올수록”으로 번역한다면, 이 단어는 기독교의 선교 사명(특히 소아시아 지역에서)을 상징하는 표현일 수도 있다. 이 경우 προσερχόμενοι는 단순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점차 증가하고 확장됨(5:9)을 가리킨다.¹⁸⁾

2) 산 돌(λίθος ζῶν)

13) Paul J. Achtemeier, *1 Peter: A Commentary on First Peter*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6), 155; Edward G. Selwyn, *The First Epistle of St. Peter*, 2nd. ed., Thornapple Commentaries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81), 159.

14) Mark Dubis, *1 Peter: A Handbook on the Greek Text* (Waco, Texas: Baylor University Press, 2010), 48.

15) 웨인 A. 그루렘 지음, 왕인성 옮김, 『베드로전서』, 탄테일 신약주석 시리즈 17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4), 149-150.

16) Peter H. Davids, *The First Epistle of Peter*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0), 85; Ernest Best, "1 Peter II 4-10 - A Reconsideration", *Novum testamentum* 11, no. 4 (1969), 283.

17) 웨인 A. 그루렘 지음, 왕인성 옮김, 『베드로전서』, 탄테일 신약주석 시리즈 17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4), 150.

18) J. Ramsey Michaels, *1 Peter*, WBC 49 (Waco, Texas: Word Books, 1988), 97.

① λίθος

전통적으로 돌(λίθος)은 생명 없는 물체를 가리키는 용어이며, 하나님과 대조되거나(행 17:29) 아브라함의 자손 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과 대조(마 3:9; 눅 3:8; 눅 19:40)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구약 선지서와 랍비문헌에서 돌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며(단 2:34 이하; 사 8:14; 스4:7 등), 신약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돌에 비유되고 있다(마 21:42, 막 12:10, 눅 20:17; 눅 20:18, 마 21:44; 행 4:11; 롬 9:32-33 등)다.

특히 베드로전서 2:4는 시편 118:22를 인용한다.

λίθον ὃν ἀπεδοκίμασαν οἱ οἰκοδομοῦντες οὗτος ἐγενήθη εἰς κεφαλὴν γωνίας (시편 118:22 및 마 21:42, 막 12:10, 눅 20:17)

... λίθον ζῶντα, ὑπὸ ἀνθρώπων μὲν ἀποδοκιμασμένον παρὰ δὲ Θεοῦ ἐκλεκτὸν ἔντιμον (벧전 2:4)

마 21:42, 막 12:10, 눅 20:17은 시 118:22를 그대로 직접 인용하여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고 인용하는 반면, 베드로는 시편 본문을 재해석하여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마 21:42, 막 12:10, 눅 20:17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버린 “건축자들”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반면(행 4:11 ὁ λίθος ὁ ἐξουθενηθεὶς ὑφ’ ὑμῶν τῶν οἰκοδομούντων...),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고 기술한다. 비록 구세주 그리스도는 사람들로 부터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다.

여기서 베드로는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예수께서 사람들로 부터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분이시듯(2:4), 예수께서 나아오는 교회공동체도 비록 세상 속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며 디아스포라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소중한 존재이다(1:1).

둘째,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공동체를 미워하고 핍박하더라도, 교회공동체의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택하심의 증거이다(4:6 참고).¹⁹⁾

채영삼 교수가 올바르게 지적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으나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한 자의 원형”이며, 교회공동체는 예수님의 수난으로부터 큰 위안을 받는다.²⁰⁾ 왜냐하면 예수께서 사람들로 부터 멸시와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지만 끝내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교회공동체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혹은

19) "... the living stones will suffer as the Living Stone has suffered, not in spite of being chosen by God but because they are chosen by God." Karen H. Jobes, *1 Peter*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chigan: Baker Academic, 2005), 133.

20) 채영삼, 『십자가와 선한 양심: 베드로전서의 이해』 (서울: 이레서원, 2014), 131-132.

비하와 승귀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이다.²¹⁾

② ζῶν

동사 ζάω의 분사형 ζῶν은 신약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을 수식하는 용법으로 사용된다. 가령 사도행전 14:15에서 살아있음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능력을 가리키며, 로마서 9:25-29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전에는 사랑치 않은 자들을 사랑하시고 백성 아닌 자를 백성이라 부르심(혹은 새 백성의 창조)을 통해 드러난다. 또한 요한복음 6:54-68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자를 통해 영생을 나누어줌을 의미한다.²²⁾

그런데 베드로전서 2:4에서 “산 돌”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우리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산 돌”로 규정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a) 부활한

ζῶν의 일차적 의미는 “살아있는”이며, 예수께서 “산 돌”이신 까닭은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새 성전인 교회의 초석이 되시며, 산 돌이신 예수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은 산 돌들이 되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게 된다.²³⁾

(b) 죽은 것과 대비되는

예수께서 산 돌이라는 사실은 생명 없는 돌로 만들어진 구약 시대의 성전(혹은 이방신전)과 비교되는 예수님의 우월성을 보여준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의 장막을 충만케 했고(출 33:8-13; 40:34-38) 솔로몬의 성전을 가득 채웠지만(왕상 8:10-11),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 에스겔 시대에 성전을 떠났다(겔 10:4, 18-19; 11:23). 하지만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 이후 세워진 성전에 관해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약속하셨다(학 2:9). 그리고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 즉 예수님의 몸은 구약 성전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이며(요 2:19-21),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거하시는 곳이다(골 1:19). 한편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자신의 백성 가운데 머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14:17, 23), 오순절 성령강림사건 이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와 참된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²⁴⁾ 따라서 산 돌의 기초 위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산 돌들(교회공동체)이야말로 생명 없는 돌로 지어진 옛 성전보다 훨씬 위대하다.

21) Karen H. Jobes, *1 Peter*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chigan: Baker Academic, 2005), 133.

22) Paul S. Minear, "The House of Living Stones: A study of 1 Peter 2:4-12", *The Ecumenical Review* 34/3 (1982), 240.

23) Karen H. Jobes, *1 Peter*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chigan: Baker Academic, 2005), 133.

24) 웨인 A. 그루렘 지음, 왕인성 옮김, 『베드로전서』, 턴데일 신약주석 시리즈 17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4), 151 및 158-159. J. Ramsey Michaels는 “산 소망”(1:9)과 “산 돌”(2:4)이 당시 로마의 이방신전 및 우상숭배와 대립된다고 해석한다. J. Ramsey Michaels, *1 Peter*, WBC 49 (Waco, Texas: Word Books, 1988), 98.

(c) 생명을 주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신약성경에서 ζῶν이 그리스도를 수식할 때 “생명의”, “살아 있는”이라는 뜻 외에 “생명을 주는”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가령 “생수(ὕδωρ ζῶν)”(요 4:10)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요 4:14)을 가리키고, “산 떡(ὁ ἄρτος ὁ ζῶν)”(요 6:51)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그리스도의 살” 이자 “영생을 가져다 주는 떡”을 뜻하며, 예수께서 자기 피로 드린 제사는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새로운 생명의 길”(히 10:20)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산 돌”이라는 표현이 예수께서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심을 뜻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²⁵⁾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나아오는 교회공동체가 “산 돌들”이라는 것은 교회공동체가 생명을 얻어 “살아 있음”을 뜻할 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줌” 혹은 다른 이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을 의미한다고 해석 가능하다.²⁶⁾

다만 조심스러운 것은 “산 돌”이라는 표현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베드로전서 2:4-5에만 등장하며, 베드로전서에서 ζῶν은 2회(3:7, 3:10), ζῶν은 4회(1:3, 2:4, 2:5, 4:5) 사용되고 있는데 문맥상 “생명을 주는”보다는 “살아 있는”을 의미하는 듯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2:4-5의 “산(ζῶν)”이 “생명을 나누어 주는”으로 해석하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문맥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신약성경 전체의 용례를 고려할 때 ζῶν을 “생명을 주는”으로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며, 베드로전서의 문맥을 고려할 때도 양립불가능하지 않다. 가령 베드로는 3:18에서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의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라고 말하는데, 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다시 생명을 얻으셨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불의한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혹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때, 예수께서 “산 돌”이시라는 말은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음을 뜻할뿐더러, 예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셨음을 가리킨다고 해석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4.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됨(2:5)

2:5는 2:4의 결과이다. 이제 베드로는 기독교론에 기초해서 교회론을 논하고 있다. 즉 성도들은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옴으로써 산 돌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들로 하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가며, 동시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1) 산 돌들(λίθοι ζῶντες)

그리스도인들은 본래 산 돌들이 아니었지만, 그리스도께로 나아와서 연합됨으로 인해 산

25) Edward G. Selwyn, *The First Epistle of St. Peter*, 2nd. ed., Thornapple Commentaries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81), 159; J. Ramsey Michaels, *1 Peter*, WBC 49 (Waco, Texas: Word Books, 1988), 98. 고전 10:4의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반석”도 참고.

26) Paul S. Minear, "The House of Living Stones: A study of 1 Peter 2:4-12", *The Ecumenical Review* 34/3 (1982), 241.

돌들처럼 쌓이고 거룩한 전으로 세워지게 된다. 여기서 베드로는 “산 돌들처럼(ὡς λίθου ἰῶντες)”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교회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공동체의 지체들 사이에 존재론적 간극이 존재함을 함축할 수도 있다.²⁷⁾ 하지만 2:4-5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 간의 차이를 강조한다기보다는 공통점 및 연합관계에 주목한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2:5의 “너희도(καὶ αὐτοὶ)”는 2:3의 “주(ὁ κύριος)” 및 2:4의 “산 돌(λίθον ἰῶντα)”과 맺구를 이루고 있으며, 2:5의 οἰκοδομεῖσθε를 직설법 현재시제 동사로 간주할 경우 “현재 너희(교회공동체)는 산 돌이신 예수께로 나아와서,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차곡차곡 쌓아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중이다.”를 의미하게 되어, 새 성전 건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연합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돌에 비유하는 구절은 이미 구약성경에도 있었다. 가령 이사야 51:1-2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 너희는 나를 들을찌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바위, 사라는 채석장에 비유되고 있으며, 그 후손들은 채석장에서 채굴된 돌들에 비유되고 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물학적 조상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생물학적 정체성은 “썩어질 썩”에 기인한 것이었다. 반면 베드로전서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으며(1:3), “썩지 아니할 썩(하나님의 말씀)”로 거듭났다(1:23). 이렇게 볼 때, 베드로전서 2:4-5에서 그리스도를 “산 돌”, 그리스도인들을 “산 돌들”에 비유하는 것은, 거듭난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동일한 반석에서 채굴되었음을 시사하며,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수난과 영광의 본을 따를 것임(2:21)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돌에 비유하는 것은 콤란문헌에서도 발견된다. 가령 1QpHab(1Q Habakkuk Pesher) x 1은 공동체를 돌에 비유하고 있으며, 1QS(1Q Rule of the Community) viii 7-8은 공동체를 귀한 모퉁이돌에 비유하고 있다. 하지만 4QpIsa^a(4Q Isaiah Pesher^a)에 따르면 공동체의 기초는 제사장들이며, C.D.(Damascus Document) iii 19-iv 3에 따르면 새 성전의 제사직무를 담당하는 것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사독의 자손들이다. 반면 베드로전서에 따르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사장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게 된다.”(2:5) 이렇게 볼 때, “산 돌의 기초 위에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가는 산 돌들”이라는 베드로의 교회론은 콤란공동체의 새 성전 이해와는 상이하다고 생각된다.²⁸⁾

한편 교회의 각 구성원이 산 돌들이라는 사실은 각 성도들이 교회공동체로 세워져가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담당함을 시사한다. 가령 베드로전서 4:10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하는데, 이는 각 사람이 은사를 받았으며 교회공동체를 세워 나가기 위해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해야 함을 가르친다. 이와 관련해서 Karen H. Jobes는 흥미로운 비유를 제시한다. 어느날 스파르타의 왕이 자기 나라를 방문한 왕에게 스파르타의 벽을 자랑했다. 하지만 외국 왕은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도시의 성벽을 발견하지 못하자 스파르타 왕에게 물었다. “도대체 그 유명한 스파르

27) Paul J. Achtemeier에 따르면, 베드로가 수신자들을 “산 돌들처럼(ὡς λίθου ἰῶντες)”이라고 부른 까닭은 그리스도와 달리 성도들은 죽음에서 부활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Paul J. Achtemeier, *1 Peter: A Commentary on First Peter*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6), 155.

28) 제사장직에 대한 콤란 공동체와 교회공동체의 차이점에 관해서는 Katherine Anne Girsch, *Begotten Anew: Divine Regeneration and Identity Construction in 1 Peter*, PhD thesis (Durham University, 2015), 250 참고.

타의 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스파르타의 왕은 자기 군대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바로 이들이 스파르타의 벽입니다. 각 사람이 벽돌이지요.”²⁹⁾

2) 신령한 집(οἶκος πνευματικός)

① οἶκος

οἶκος는 고전 헬라문헌이나 신약성경에서 주로 신전 혹은 성전 건물(하나님이 살고 계신 곳)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다(왕상 9:1; 대상 28:10-13; 대하 7:5; 스 1:7; 사 56:7; 시 69:9; 116:19; 118:26; 마 12:4; 21:13; 막 2:26; 눅 11:51; 요 2:16). 하지만 이 단어는 물리적 건물이 아니라 가구 구성원 내지 가족 공동체를 가리킬 수도 있다.³⁰⁾ 가령 마태복음 10:6에서 οἶκος는 동일한 조상의 후손들을 가리키며, 히 3:6에서는 가족을 뜻한다. 이렇게 볼 때 예수께서 나아옴은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으로 편입됨을 의미할 수 있다.³¹⁾

아마도 벵전 2:5에서 οἶκος는 “성전”과 “(신성 가족의 구성원으로 편입된) 교회공동체” 모두를 가리킨다고 생각된다. 즉 교회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인 동시에, 건물이 아닌 성도 공동체인 것이다.³²⁾

② πνευματικός

οἶκος πνευματικός는 물리적 건물인 예루살렘 성전에 대비되는 새 성전을 뜻한다고 판단된다. 신약성경에는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새 성전으로서의 교회공동체)이 손으로 지은 성전(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할 것이라는 구절들이 많이 등장한다(막 14:58; 15:29; 요 2:19; 4:21-24; 행 7:48; 17:24). 새 성전은 옛 성전과 달리 사람에 의해 파괴되지도 않으며 사람의 힘에 좌우되지도 않는다. 교회의 이같은 정체성은 적대적 환경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안을 준다. 왜냐하면 새 성전으로서의 교회공동체는 생명 없는 돌이 아니라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해 있기에, 설령 때로는 꺾박받더라도 사람의 손으로 훼손하거나 파괴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πνευματικός는 “성령의 영향 혹은 지배를 받는”, “성령의 성품을 공유하는”을 의미하기도 한다(롬 1:11; 고전 2:13, 15; 12:1; 갈 6:1; 골 3:16).³³⁾ 이에 따르면 교회공동체란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며, 성령께서는 교회공동체를 구성하는 각 구성원

29) Karen H. Jobes, *1 Peter*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chigan: Baker Academic, 2005), 134.

30) 실제로 콤파공동체는 스스로를 성스러운 집 또는 새 성전으로 간주했으며(1QS viii 4-6; ix 3-6; 4QFlor i 1-3), 신약성경에도 기독교공동체를 새 성전으로 간주하는 구절들이 존재한다(고전 3:16-17; 6:19; 고후 6:16; 딤후 3:15; 히 3:6; 10:21; 계 3:12; 11:1 및 행 7:48, 엡 2:19-22 참고).

31) Jerry Truex, “God’s Spiritual House: A Study of Peter 2:4-5”, *Direction* 33/2 (2004), 188.

32) 아마도 οἶκος의 일차적 의미는 “성전”인 듯하다. Karen H. Jobes, *1 Peter*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chigan: Baker Academic, 2005), 134; Mark Dubis, *1 Peter: A Handbook on the Greek Text* (Waco, Texas: Baylor University Press, 2010), 48; 채영삼, 『십자가와 선한 양심: 베드로전서의 이해』 (서울: 이레서원, 2014), 133-135.

33) 웨인 A. 그루렘 지음, 왕인성 옮김, 『베드로전서』, 틴데일 신약주석 시리즈 17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4), 153.

안에 거하신다. 따라서 교회공동체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다.³⁴⁾

3)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ιεράτευμα ἁγίων)

여기까지 베드로는 교회공동체의 정체성을 규명하기 위해 먼저 교회의 기초가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였고, 이어서 교회공동체가 예수께로 나아오면 산 돌들이 되어서, 신령한 집 즉 새 성전으로 세워져간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교회공동체가 새 성전(하나님의 거처)인 동시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임을 밝히고 있다.

① ιεράτευμα ἁγίων

ιεράτευμα는 신약성경에서 유일하게 베드로전서에만 두 번(2:5; 2:9) 등장하는데, 아마도 출애굽기 19:6에 대한 언급인 듯하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출 19:5-6)고 약속하셨다. 이제 그 약속이 새 이스라엘인 교회공동체에 의해 성취된 것이다.³⁵⁾

본래 ἅγιος는 정결하게 된 사람 혹은 사물을 가리키는 형용사이다. 가령 민수기 8장에 따르면,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속죄의 물을 뿌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며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며,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안수케 해야 했다. 이로써 레위인들은 여호와께 봉사할 수 있었다(민 8:6-11). 마찬가지로 제사장을 정결케 하려면, 먼저 이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입히며, 관유를 가져다가 머리에 부어 바르고, 제사를 지내어 희생제물의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귓부리에 바르고 옷에 뿌려야 했다(출 19:1-21; 레 8:1-36). 이러한 의식의 목적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에 합당한 거룩함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이제 제2의 출애굽 공동체인 교회공동체가 첫 번째 출애굽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장 직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교회공동체는 과거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거룩함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먼저 교회공동체를 택하고 부르셨고(벧전 1:1; 1:15), 세례를 통해 과거의 죄를 씻으셨으며(벧전 3:21), 안수하고(히 6:2) 기름 부으셨고(요일 2:20, 27),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를 뿌리셨다(벧전 1:2, 18-21; 요일 1:7; 히 12:24). 이로써 교회공동체는 땅을 다스릴 왕들과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들이 되었다(계 1:6; 5:10).³⁶⁾

한편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졌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

34) Ernest Best, "1 Peter II 4-10 - A Reconsideration", *Novum testamentum* 11, no. 4 (1969), 293.
35) 이 구절은 만인제사장설의 근거가 되었다. 만인제사장설에 따르면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며(계 5:10), 자신의 죄 사함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한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에 각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렘 31:33-34; 요일 2:27). 그러나 베드로전서 2:5의 초점은 성도들 각각이 제사장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산 돌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공동체로서 제사장직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구절만으로는 교회 내에 성직자 계급이 존재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 성도가 제사장인지 분명치 않다. M. Eugene Boring, *1 Peter*, Abingdon New Testament Commentaries (Nashville: Abingdon Press, 1999), 99.
36) Edward G. Selwyn, *The First Epistle of St. Peter*, 2nd. ed., Thornapple Commentaries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81), 292.

인들에게 안수(민 8:10-11)한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도록 임명하기 위해서였다.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은 열두 지파의 이름을 새긴 12개의 보석을 흉패에 달고 있었다. 이렇게 볼 때, 만약 교회공동체가 거룩한 제사장이라면, 마치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공동체가 모든 민족과 국가 나아가 전 인류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교회는 인류를 중보하기 위해 택함받은 제사장 공동체이다.³⁷⁾

② πνευματικᾶς Θυσίας

신령한 제사(영적 제사)는 이스라엘과 이방종교의 물질적 희생제사에 대비되는 것으로서, 이미 구약성경에서도 “기도”, “감사”, “상한 심령” 등을 뜻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시 4:5; 19:14; 50:13-14, 23; 51:17; 69:30-31; 107:22; 141:2). 특히 호세아 9:4와 이사야 1:11-15는 악한 자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심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으며, 호세아 6:6, 미가 6:6-8, 시편 50:13-15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제사나 번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는 것 또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시편 51:19는 영적 제사야말로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한다.

신약성경에서도 신령한 제사는 “성도의 기도”(계 8:3-4), “감사와 찬미”(히 13:15), “성도 자신의 몸”(롬 12:1), “믿음”(빌 2:17), “이방인들의 회심”(롬 15:16), “순교”(딤후 4:6), “구제”(빌 4:18 및 행 10:4),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줌”(히 13:16) 등의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여기서 언급된 다양한 의미는 모두 베드로전서 2:5의 “신령한 제사”에 적용 가능한 듯하다. 특히 베드로전서 2:9는 왕같은 제사장(혹은 제사장 나라)의 직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Karen H. Jobes가 지적하고 있듯이, 교회공동체는 단지 말로만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 중에서도 선한 행실을 가짐으로써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교회공동체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2:12).³⁸⁾

1:15에서 베드로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는데, 이는 거룩함이 일상적 행위에서 실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³⁹⁾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림은 몸이 더 이상 우리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신령한 제사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1:2)에 의해 심령이 변화되어 나타나는 모든 행동을 가리킨다. 곧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곧 희생제사이며 예배인 것이다.⁴⁰⁾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며 인내하는 제사장직의 원형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한다(3:18). 바로 이런 대제사장이 교회공동체의 기초이시며, 교회

37) Edward G. Selwyn, *The First Epistle of St. Peter*, 2nd. ed., Thornapple Commentaries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81), 292-293.

38) Karen H. Jobes, *1 Peter*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chigan: Baker Academic, 2005), 142.

39) 이런 이유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형제를 사랑하도록 권면하고 있으며(2:17, 3:8)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3:7)고 권면한다.

40) Karen H. Jobes, *1 Peter*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chigan: Baker Academic, 2005), 142; Edward G. Selwyn, *The First Epistle of St. Peter*, 2nd. ed., Thornapple Commentaries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81), 162.

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좇아,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인류를 위한 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택함 받은 것이다.⁴¹⁾

③ εὐπροσδέκτους Θεῶ διὰ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공동체가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인류를 위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택함받았음을 살펴 보았다. 하지만 교회공동체가 드리는 신령한 제사는 불의한 세상과 그 속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위한 것인 동시에, 선한 행실 때문에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교회공동체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베드로는 신령한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사(εὐπροσδέκτους Θεῶ)”임을 밝히고 있다(2:5).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향하시는지는 매우 중요한 이슈였다. 제사의 성공 여부는 불이 희생제물을 사르는가에 의해 입증되거나(창 15:17; 레 9:24), 제단 불이 꺼지지 않음(레 6:9) 또는 번제물로부터 생겨나는 향기로운 냄새(창 8:21; 레 2:2)에 의해 입증되었다. 반면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의 희생제사가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였음을 증명하셨다.

이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거룩한 제사장직을 맡게 된 교회공동체가 드리는 신령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사가 된다.⁴²⁾ 예수께서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임 당했지만 불의한 자들을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사였던 것처럼, 교회공동체가 선한 행실 때문에 오히려 비난받고 핍박받더라도 불의한 세상과 이방인들을 위해 고난받는 우리 자신의 신앙과 행함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인 것이다.

5. 시온에 둔 모퉁이 돌(2:6)과 부딪히는 돌(2:8)

베드로는 2:1-3에서 신자들을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갓난아기”에 비유했며, 2:4-5에서는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와 그 위에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고 있는 산 돌들”에 비유했다. 두 비유는 교회 공동체가 올바른 기초(말씀의 젖, 산 돌) 위에서 성장해야 함을 보여주며, 신자들이 신성 가족의 일원(씩지 않을 씨로 다시 태어난 아기, 집)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돌의 비유는 그리스도와 교회공동체 사이의 밀접한 상호연관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신자들과 불신자들의 차이도 보여준다.⁴³⁾ 베드로전서 2:6-8는 구약성경(사 28:16; 시 118:22; 사 8:14)을 인용함으로써, 산 돌이신 그리스도와 산 돌들인 교회공동체가 불신자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부연설명하고 있다.

1) 시편 118:22

41) 채영삼, 『십자가와 선한 양심: 베드로전서의 이해』(서울: 이레서원, 2014), 137 및 Katherine Anne Girsch, *Begotten Anew: Divine Regeneration and Identity Construction in 1 Peter*, PhD thesis (Durham University, 2015), 254.

42) Edward G. Selwyn, *The First Epistle of St. Peter*, 2nd. ed., Thornapple Commentaries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81), 162; Paul J. Achtemeier, *1 Peter: A Commentary on First Peter*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6), 158.

43) Katherine Anne Girsch, *Begotten Anew: Divine Regeneration and Identity Construction in 1 Peter*, PhD thesis (Durham University, 2015), 248.

먼저 시편 118:22은 역전의 모티프를 드러내 주는 구절이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다름을 지적하면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시 118:8-9)고 밝히고 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과 찬송이시며 구원되시기 때문에, 못나라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별처럼 에워싸고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신다(시 118:10-14). 따라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면 건축자의 버린 돌도 집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 있으며(시 118:22), 하나님의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할 수 있다(시 118:17).

베드로는 시편 118편을 일차적으로 기독교적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즉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돕고 구원하셨으며 세상 사람들이 배척하고 버린 “산 돌” 예수 그리스도를 새 성전의 초석으로 삼으셨다.

그런데 교회의 모퉁이들이신 예수께서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다는 사실은 교회론적으로도 중요한 함축을 가진다. 즉 교회의 초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듯이, 예수께서 나아가서 산 돌들이 되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교회공동체 또한 이 땅에서 디아스포라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지만, 최종적으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2:6),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명예 혹은 특권(τιμή)을 얻게 될 것이다(2:7).⁴⁴⁾

더구나 성도들은 전에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공허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공허를 얻게 되었다(2:10).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명(제2의 출애굽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성도들은 시험과 환란 속에서도 교회공동체 안에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⁴⁵⁾

2) 이사야 8:14, 28:16

이사야 8:14와 28:16는 심판과 구원을 주제로 하고 있다. 본래 이사야 28:16의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으며, 이사야 8:14의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구절들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귀하고 견고한 초석이신 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이 되는 분이다.⁴⁶⁾

① 이사야 8:14

44) 헬라-로마 문화에서 수치와 명예는 매우 중요한 가치였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Karen H. Jobes, *1 Peter*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chigan: Baker Academic, 2005), 143 참고.

45) Simeon F. Kehinde, "Christianity admist Violence: An Exegesis of 1 Peter 2:4-10", *Ogbomoso Journal of Theology* 19/1 (2014), 90.

46) Jocelyn A. Williams, "A Case Study in Intertextuality: The Place of Isaiah in the "Stone" Saying of 1 Peter 2", *The Reformed Theological Review*, 66: 1 (2007), 49 및 55.

먼저 8:11-15에서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선지자 이사야에게 알리시며, 백성들의 길로 가지 말 것을 깨우쳐 말씀하신다. 즉 하나님은 앓수르를 두려워하여서 그들과 헛된 맹약을 맺은 유다 백성들을 꾸짖으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경외해야 할 대상임을 강조하셨다(사 8:13).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덧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사 8:14-15)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종종 반석에 비유된다(신 32:4, 15, 18, 시 18:2, 71:3). 이 경우 대체로 반석은 피난처 내지 구원을 뜻한다. 하지만 이사야 8:14-15에서 이사야는 반석의 두 측면을 구분하고 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반석이자 피난처가 되지만,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신다.⁴⁷⁾ 하나님은 성소(ἁγίασμα)인 동시에 걸림돌(λίθου πρόσκομμα)이신 것이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7-8에서 시편 118:22와 이사야 8:14를 인용하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극명한 대조를 제시하고 있다. 즉 이사야 8:14가 예언한 것처럼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명예 내지 특권(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는 동시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 됨)이 주어지고 그리스도가 거룩한 피할 곳(또는 성소)이 되는 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혹은 말씀⁴⁸⁾에 불순종하는 자들(2:8)⁴⁹⁾에게 그리스도는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이 될 것⁵⁰⁾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시온에 모퉁이 돌로 두신 것은 신자들에게는 명예가 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심판 선언일 뿐이다.⁵¹⁾

② 이사야 28:16

이사야서의 저술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취하는 동시에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의 회복(사 1:26)을 소망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고 성읍과 토지는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거룩한 씨가 이스라엘 땅의 그루터기로 남을 것이다(사 7:9).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굳게 믿지 아니하면 그들은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사 7:9). 같은 맥락에서 이사야 28:16에서 하나님은 오만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것을 요구하시면서, 시온에 초석을 두어 언젠가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임을 약속하셨다.

이사야 28:16은 신구약 중간기 유대문헌에서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는 구절로 해석되었는데,⁵²⁾ 베드로는 이사야 28:16을 인용하면서 기독교론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있다.

47) 이와 유사하게 단 2:34-35에서도 “우상을 친 돌”이 심판의 모티프로 사용되고 있다.

48) 베드로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1:23)과 “복음”(1:25), “하나님의 복음”(4:17)을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49) 마 21:42와 행 4:11에서 그리스도를 버린 “건축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을 가리켰으나, 여기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와 복음에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단어를 적용하고 있다.

50) 불신자들이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는 것과 관련된 해석상의 문제에 관해서는 Karen H. Jobes, *1 Peter*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chigan: Baker Academic, 2005), 145-146 참고.

51) Karen H. Jobes, *1 Peter*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chigan: Baker Academic, 2005), 146.

52) 가령 Targum of Isa. 28:16은 사 28:16의 “돌”을 “강력한 왕”으로 해석한다. Chilton, *The Isaiah*

ἰδοὺ ἐγὼ ἐμβαλῶ εἰς τὰ Θεμέλια Σιων λίθον πολυτελῆ ἐκλεκτὸν ἀκρογωνιαῖον ἐντιμον
ν εἰς τὰ Θεμέλια αὐτῆς καὶ ὁ πιστεύων ἐπ’ αὐτῷ οὐ μὴ καταιοχυνθῆ (이사야 28:16
LXX)

ἰδοὺ ἐγὼ τίθημι ἐν Σιων λίθον ἀκρογωνιαῖον, ἐκλεκτὸν ἐντιμον καὶ ὁ πιστεύων ἐπ’ αὐτῷ οὐ μὴ καταιοχυνθῆ (베드로전서 2:6)⁵³

베드로는 이사야 28:16의 주절 동사 ἐμβαλῶ를 τίθημι로 바꾸고 있는데, 이를 통해 2:8의 ἐτέθησαν과 inclusio 구문을 형성하는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택함받은 분(2:6)임을 강조하고 있다.⁵⁴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택함받은 자들이다(1:1, 2:9). 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인해 넘어지도록 정해진 자들(ἐτέθησαν)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순종해서 넘어지게 된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베드로 전서는 교회공동체(신령한 집)가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게 되었으며, 출애굽 공동체의 제사장 나라 직분을 제2의 출애굽 공동체(혹은 새 이스라엘)인 교회가 대신하게 되었다는 충격적 선포를 제시한다.⁵⁵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순종해서 넘어지게 된 자들은 일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죽인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베드로전서는 적대적 세상 속에서 디아스포라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온갖 비난과 핍박을 감내해야 했던 교회공동체를 향한 위로와 권면의 글이기도 하다. 따라서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오히려 썩고 더러워지고 쇠하는 것을 추구하는 악한 세상의

Targum, 56. Martin Williams, *The Doctrine of Salvation in the First Letter of Peter* (Cambridge, 2011), 66에서 재인용.

53) 베드로는 εἰς τὰ Θεμέλια라는 구절을 삭제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표현이 불필요한 중복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왜냐하면 모퉁이 돌은 당연히 건물의 기초에 놓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J. Jeremia는 이를 근거로 ἀκρογωνιαῖον을 “모퉁이 돌(주춧돌)”이 아니라 “갓돌(건물 아치 위에 놓이는 돌)”로 해석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베드로가 εἰς τὰ Θεμέλια라는 구절을 삭제한 까닭은 ἀκρογωνιαῖον을 건물 기초에 놓이는 주춧돌이 아니라 갓돌로 재해석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2:8에서 이 돌이 부딪히는 돌(λίθος προσκόμματος :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고려하면, ἀκρογωνιαῖον은 주춧돌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옳다. 이와 마찬가지로 2:7(시 118:22 참고)의 κεφαλὴ γωνίας도 건물 꼭대기에 있는 돌이 아니라 가장자리에 위치한 돌을 지칭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베드로전서 2:4-10은 교회공동체가 어떻게 산 돌이신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세워져가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ἀκρογωνιαῖον과 κεφαλὴ γωνίας을 “갓돌”이 아니라 “모퉁이 돌(혹은 주춧돌)”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J. Jeremia, “γωνία, ἀκρογωνιαῖος, κεφαλὴ γωνίας”, in *TDNT* ed. G. Kittel, tr. G.W. Bromiley (Grand Rapids: Eerdmann, 1964), Vol. 1, 791-793 및 J. Ramsey Michaels, *1 Peter*, WBC 49 (Waco, Texas: Word Books, 1988), 103; Paul J. Achtemeier, *1 Peter: A Commentary on First Peter*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6), 160; Edward G. Selwyn, *The First Epistle of St. Peter*, 2nd. ed., Thornapple Commentaries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81), 163; Peter H. Davids, *The First Epistle of Peter*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0), 90-91 n. 29; Karen H. Jobes, *1 Peter*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chigan: Baker Academic, 2005), 147.

54) τίθημι는 신약성경에 100회 등장하는데 to lay(“놓다”) 외에 to appoint(“지명하다”)를 의미하는 반면, ἐμβαλῶ는 단순히 set or put into a specific place(“특정 장소에 놓거나 두다”)를 뜻한다. Jocelyn A. Williams, "A Case Study in Intertextuality: The Place of Isaiah in the "Stone" Saying of 1 Peter 2", *The Reformed Theological Review*, 66: 1 (2007), 43-44; Martin Williams, *The Doctrine of Salvation in the First Letter of Pet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67-69.

55)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2:9)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과 바벨론 종살이에서 구원하셨다는 이사야의 말(가령 사 9:2, 42:16, 58:10)을 연상시킨다.

불신자들도 그리스도에 걸려 넘어지는 자에 포함된다고 생각된다.

6. 결론

베드로전서는 악한 세상 속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던 교회공동체와 성도들에게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새로운 사명을 제시하고 있다. 즉 교회의 초석이신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바 되었으나 하나님으로부터는 택함받은 것처럼(2:4), 산 돌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거룩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된 교회공동체(2:5)도 다양한 믿음의 시련으로 인해 근심하게 되고 선한 양심과 행실로 인해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핍박받게 될 수 있지만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한다(1:6). 또한 교회공동체의 기초이신 그리스도께서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시며 우리 죄를 담당하셨던 것처럼(2:23-24),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하며(4:13) 예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도 영광에 참여할 것을 기다리면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1:22). 이렇듯 악한 세상 속에서도 교회공동체가 선한 행실을 가지면 우리를 비방하는 이방인들조차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돌릴 것이다(2:12).

베드로전서 2:1-10은 다양한 비유를 통해 교회공동체의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특히 2:4-8의 “돌” 모티프와 관련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 ① 2:1-10의 내용은 다시 태어난(거듭난) 신자들의 성장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젖을 먹고 성장하는 갓난아기 → 신성 가족 구성원에 편입되어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됨(신령한 집) → 산 돌들(교회공동체)은 옛 성전을 대체하는 새 성전이 되며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제사장 공동체가 됨 → 옛 이스라엘을 대체할 새 이스라엘이 됨
- ②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산 돌들인 신자들의 본이 된다. 즉 교회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2:21).
- ③ 산 돌은 하나님에게는 택함 받은 보배로운 돌이었으나,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었다(2:4). 마찬가지로 산 돌들인 신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무시와 핍박을 당할 수 있지만, 이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따라서 신자들은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1:6).
- ④ 신자들에게 산 돌은 새 성전인 교회공동체의 기초를 이루는 모퉁이돌이지만(2:6), 말씀에 순종치 않아 넘어지는 자들에게 산 돌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된다(2:8).

고난당하는 교회공동체를 향한 베드로의 교훈과 권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도전을 준다. 베드로가 서신을 썼을 때와 마찬가지로 현대인들도 뿔뿔이 흩어져 외로이 살아가며, 더럽고 속이고 죽이는 말들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다. 하지만 베드로는 우리에게 교회공동체의 정체성과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 “여러분은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즉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또한 여러분은 예수께로 나아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장으로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세상의 말을 본받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사

모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더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온유함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부당하게 비방하는 사람들도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참고문헌

- 웨인 A. 그루렘. 『베드로전서』 (틴데일 신약주석 시리즈 17), 왕인성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4.
- 채영삼. “교회란 무엇인가? (2) : 베드로전서 2:9 주해,” 『백석신학저널』 제25호 (2013): 211-26.
- _____. 『십자가와 선한 양심: 베드로전서의 이해』 서울: 이레서원, 2014.
- Achtemeier, Paul J. *1 Peter: A Commentary on First Peter*.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6.
- Best, Ernest. "1 Peter II 4-10 - A Reconsideration.", *Novum testamentum* 11/4 (1969): 270-93.
- Boring, M. Eugene. *1 Peter*. Abingdon New Testament Commentaries. Nashville: Abingdon Press. 1999.
- Calvin, John. *The First Epistle of Peter*, in *Calvin's Commentaries*. vol. 22. trans. John Owen. Grand Rapids: Baker, 1996.
- Davids, Peter H. *The First Epistle of Peter*.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0.
- Dorani, Daniel M. *1 Peter*. Phillipsburg & New Jersey, 2014.
- Dubis, Mark. *1 Peter: A Handbook on the Greek Text*. Waco, Texas: Baylor University Press, 2010.
- Eusebius. *Historia ecclesiastica (Hist. eccl.)*. in *Histoire ecclesiastique*. 3 vols. ed. G. Bardy. Paris: Cerf, 1952-1958.
- Feldmeier, Reinhard. *The First Letter of Peter: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Trans. Peter H. Davids,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2008.
- Girsch, Katherine, Anne. *Begotten Anew: Divine Regeneration and Identity Construction in 1 Peter*. PhD thesis. Durham University, 2015.
- Jeremias, J. "γωνία, ἀκρογωνιαίος, κεφαλὴ γωνίας," in *TDNT*. ed. G. Kittel, tr. G.W. Bromiley. Grand Rapids: Eerdmann, 1964. Vol. 1.
- Jobs, Karen H. *1 Peter*.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chigan: Baker Academic, 2005.
- Kehinde, Simeon F. "Christianity admist Violence: An Exegesis of 1 Peter 2:4-10." *Ogbomoso Journal of Theology* 19/1 (2014): 78-92.
- Martinez, Florentino Garcia. *The Dead Sea Scrolls Translated: The Qumran Texts in English*. Trans. Wilfred G. E. Watson. 2nd ed.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96.
- Michaels, J. Ramsey. *1 Peter*, WBC 49. Waco, Texas: Word Books, 1988.

Minear, Paul S. "The House of Living Stones: A study of 1 Peter 2:4-12." *The Ecumenical Review* 34/3 (1982): 238-48.

Selwyn, Edward G. *The First Epistle of St. Peter*. 2nd. ed. Thornapple Commentaries.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81.

Tran, Nha, Trong, *A Theology of the First Epistle of Peter: God in Threefold Revelation*. PhD Thesi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6.

Truex, Jerry. "God's Spiritual House: A Study of Peter 2:4-5." *Direction* 33/2 (2004): 185-93.

Williams, Jocelyn A. "A Case Study in Intertextuality: The Place of Isaiah in the "Stone" Saying of 1 Peter 2." *The Reformed Theological Review* 66/1 (2007): 37-55.

Williams, Martin. *The Doctrine of Salvation in the First Letter of Peter*. Cambridge, 2011.

국문초록

산 돌에게 나아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산 돌들
-베드로전서 2:4-8에 나타난 교회공동체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오유석 (백석대)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1:1)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이전의 잘못된 생각과 생활방식을 버렸다(2:10-11). 하지만 그들은 세상 속에서 나그네와 행인(1:1, 2:11)으로 살아가야 했으며, 악인으로 오인되고(2:12),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인혜욕을 받게 되었다(4:14). 베드로전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직면한 교회공동체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해 주는 동시에, 적대적인 환경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길을 가르치고 있다.

베드로전서 2:1-10은 다양한 비유를 통해 교회공동체의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특히 2:4-8의 “돌” 모티프와 관련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① 2:1-10의 내용은 다시 태어난(거듭난) 신자들의 성장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젖을 먹고 성장하는 갓난아기 → 신성 가족 구성원에 편입되어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됨(신령한 집) → 산 돌들(교회공동체)은 옛 성전을 대체하는 새 성전이 되며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제사장 공동체가 됨 → 옛 이스라엘을 대체할 새 이스라엘이 됨

②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자들의 다시 태어남의 기초이며(1:3),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산 돌들이신 신자들의 본이 된다. 즉 교회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2:21).

③ 산 돌은 하나님에게는 택함 받은 보배로운 돌이었으나,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었다(2:4). 마찬가지로 산 돌들이신 신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무시와 핍박을 당할 수 있지만, 이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따라서 신자들은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1:6).

④ 신자들에게 산 돌은 새 성전인 교회공동체의 기초를 이루는 모퉁이돌이지만(2:6), 말씀에 순종치 않아 넘어지는 자들에게 산 돌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된다(2:8).

주제어 : 거듭남(다시 태어남), 교회의 정체성, 베드로전서, 산 돌, 산 돌들, 신령한 집(성전)

abstract

“Living Stones” being built into a “Spiritual House”, coming to the “Living Stone”
- as regards the identity of the church in I Peter 2:4-8 -

Yu-Suk Oh (Baek-Seok Univ.)

The readers of 1 Peter were the chosen by God (1:1) and have forsaken their previous thoughts, life ways and identities, re-begotten of God into the people of God (2:10-11). Nevertheless, they had to live as aliens and sojourners in the world (1:1, 2:11), mistaken for evildoers (2:12) and reproached for the name of Christ (4:14). 1 Peter redefines the identity of believers and gives survival tips to the Christians in the hostile environments.

1 Peter 2:1-10 explains the identity of the church through several metaphors. As regards the “stone” motif, we can get the following conclusions.

① 1 Peter 2:1-10 describes the growth of believers born again of incorruptible seed : newborn babes who feed the sincere milk of the word and grow → adoption into the family of God (the spiritual “oikos”) → “Living Stones” that become a new temple replacing the old temple and an holy priesthood to offer up spiritual sacrifice → new Israel (a nation) that replaces old Israel

② The resurrection of Christ is the source of believers’ regeneration (1:3). Furthermore Jesus Christ as a “Living Stone” is the pattern which believers as “Living Stones” conform to in their suffering, resurrection and future glory. Therefore the church must follow Jesus’ example of suffering (2:21).

③ “Living Stone” was a precious stone chosen of God, nevertheless rejected of men (2:4). Likewise, believers as “Living Stones” may be mocked and suffer persecution from the world. But they rejoice greatly, knowing that sufferings are the proof to show God’s choice (1:6).

④ To the believers “Living Stone” is a chief coner stone to build a new temple (2:6), although it is a stone of stumbling and a rock of offence to those who stumble at the word, being disobedient (2:8).

제36회 기독교학문학회 발표논문 (19.10.26)

key words : regeneration, identity of the church, 1 Peter, Living Stone, living stones, spiritual house(Temple)